

## 새로운 국어 사전 기획, 너무나 중요하다

홍 재 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국립국어연구원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새로운 한국어 대사전 편찬 작업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어 표현 문화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자, 그 생성과 존재의 모태인 한국어의, 그 어휘적 측면에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체계화하는 또 다른 하나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의 구축은 -한글학회가 다년간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우리말 큰 사전' 등 몇몇 대사전이 출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어 사용 공동체가 성취시켜야 할 긴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무엇보다 광복 이후 최초로 정부의 지원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때늦은 것이기는 하나, 그 의의가 막중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전 편찬의 목표, 전체적 성격, 규모 등이 이미 결정되고, 집필 지침을 비롯한 준비 단계의 여러 작업이 완료되어 항목 집필까지 진전을 보고 있는 마당에 국외자가, 이 시점에서 더구나 논의를 위한 실증적 자료도 별로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원의 사전 기획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막연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망 겸 제언을 두 가지만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이 작업은 현대 한국의 문화적 역량의 상징적 표상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사적 의의를 지닌 기도로써 성공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관계 분야의 관심 있는 국내의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실로 끝 맺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중대한 문화 사업의 깊은 의의를 절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더욱 더 과감하게 예산,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규

모 언어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가까운 시일 내에 유사한 제 이의 기획이 있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기획이 시간에 쫓겨 줄 속으로 마무리되거나 업적 과시나 전시 위주의 문화 정책 수행 관행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기우나 개인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한 가지 희망은 다음과 같이 사전 구축 작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기획 중인 사전은 50만 표제어 수록을 지향하는 대규모 확장형 사전이다. 그 거시구조의 구성 요소는 표준 한국어 어휘 이외에 방언과 지역 한국어(북한 및 연변 등지의 해외동포가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 및 상당수의 옛말을 포함하게 되어, '국민 언어 생활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능 보다는 '오천년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의가 더 우세한, 교육적 성격보다는 일반 언어 사전이 갖는 학술적 성격이 훨씬 더 두드러진, 일종의 한국어 백과 사전과도 같은 관념의 사전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사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로 하고, 다만, 거시구조의 과대한 확장이 지닐 수 있는 의의에 만족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목 기술의 풍부함, 참신성, 독창성 등을 함께 추구해 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좀 더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4만 내지 5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표준 한국어의 핵심 어휘에 대해서는, 가능한 풍부한 언어 정보를, 최근까지의 언어학, 한국어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또한 표제어 부류별로 엄격히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언어 사용자들이 한국어 어휘에 대해 갖고 있는 언어 지식을 총체적으로 표상하고자 하는 기도로서의 대규모 한국어 사전 편찬이 학술적, 나아가서 문화사적 의의를 갖게 하는 요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다년 간의 학구적인 노력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연구원의 사전 작업이 앞서 지적한 대로 현금의 한국어 사용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가능할 수 있는 획기적 기도로 평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오늘날 한국의 인문과학 연구 여건이나 출판 풍토로 보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그래도 유리하고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자리에서 '풍부한 언어 정보'라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세세히 논급하기는 어렵다. 단지,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점은, 표제어화된 표준 한국어 핵심 어휘를 세밀하게 유형화하여 -단순한 품사별 유형화를 넘어서 더욱 세분된 분류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 유형별로 항목 기술의 내용과 모형을 설정하고, 물론 모든 항목의 필수적 공통 미시구조는 유지되면서 말이다.

집필자는 유형별로 항목 기술을 담당하는 것이 최대한의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는 방안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일반 단일어 사전에 대한 사전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